

날것의 영감 생생

이주헌(미술평론가)

드로잉이란 평면위에 선으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대체로 단색 재료로 선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몇 가지 색이 더해져 페인팅에 가까운 채색화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드로잉의 미학은 서양보다 동양에서 더 중시되어 왔다. 동양화는 태생적으로 드로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양화와 달리 선묘를 중시하고 여백으로 과감하게 살리는 전통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물론 서양에서도 드로잉은 중요한 장르였다. 특히 르네상스에 이르러 드로잉은 천재 개념의 발달과 맞물려 새로운 주목을 받았다. 널리 알려져 있는 천재예술가 개념은 르네상스의 소산이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천재예술가라는 관념이 희박했다.

중세에도 뛰어난 미술가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그저 장인으로 생각했을 뿐, 신이 특별한 창조 능력을 더해준 '선택된 자' 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이 등장하면서 예술가는 더 이상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천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드로잉에 새삼 주목하게 된 것은 그들의 천재성과 영감이 가장 신선하고 순수한 상태로 표현된 게 드로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재고와 조탁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유화의 날것의 아이디어와 영감이 충만한 드로잉이 신적 재능을 더 잘 드러내 보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수집되지 않았던 미술가들의 드로잉이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했다.

송호은의 드로잉전 '미술은 내공의 문제이다' (소소갤러리)는 이런 드로잉의 본질적인 재미가 충만한 전시다. 드로잉에만 x매진해온 젊은 화가답게 그가 그리는 것은 '죽은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각'이다. 끝없이 솟아나는 영감과 아이디어, 새롭게 다가오는 일상의 표정, 추억과 기대의 회로 사이를 돌아다니는 욕망과 꿈이 그의 펜 끝, 혹은 붓 끝에서 생생한 이미지로 살아 나온다.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그려도 유화로 그리면 시장에 몇 배 더 비싸게 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드로잉에만 매달리고 있다. 주체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분출을 순발력 있게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림은 오직 드로잉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연필, 목탄, 수채, 시트지, 디지털 매체 등 매우 다양한 재료를 동원한다, 주제도 무척 다채롭다. 어릴 때부터 유난했던 정리 벽을 소재로 한 '나의 청소법' 연작, 구호문화를 패러디한'이젠 저도 지쳤어요, 그만 할래요', 중국에 가기 전에 상상으로 그린 '상상속의 상하이'연작, 환경과 생태에 상념을 담은 '지구를 구하라'연작 등 주제와 소재의 한계가 없이 펼쳐지는 그의 드로잉을 보노라면 우리의 뇌가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며 꿈틀대기 시작한다. 세상이 얼마나 흥미롭고 탐험하기 좋은 곳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이다.